

천하제일사료

지역부장 양계 전문화 교육 실시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윤하운)는 지난 4월 26일 하림중앙연구소에서 으뜸 양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지역부장의 양계 전문 지식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의 지역부장 20여 명이 참석해 육계, 육용종계, 산란계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심도 있게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계 주요 질병의 원인 및 증세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높은 교육열의를 나타냈다.

교육을 맡은 양계PM 윤인호 부장은 “꾸준한 양계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부장들의 양계 지식을 높여 고객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CJ 제일제당 사료BU

항생제 대체 원료 첨가 양계사료 출시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박호인)는 지난 3월

26일 CJ에서 개발한 사료첨가제 바이오텍터를 첨가한 양계사료인 ‘CJ 바이오텍 사료’를 출시했다.

먼저 바이오텍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특정 병원성 세균을 파괴하는 미생물을 활용해 개발한 신개념의 사료용 첨가제이다. 항생제는 몸에 나쁜 세균 뿐 아니라 유익한 세균까지 동시에 없애며 지속적으로 사용 시 내성을 유발하는 부작용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축산물 내 잔류 가능성으로 인해 그 고기를 섭취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다.

바이오텍터는 특정 세균에만 작용하는 기생형 미생물인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익한 세균은 그대로 놔두고 병원성 세균만 골라서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로 세균을 잡는 원리이기 때문에 내성이나 인체 잔류 등의 염려가 없다.

양계사료 CJ 바이오텍 사료 시리즈는 가금류의 대표적 세균성 질병인 가금티푸스와 추백리(두 질병 모두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폐사 유발)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실제 양계농장 8곳에서 총 40만마리에 이르는 닭에 바이오텍터를 투여한 결과 살모넬라로 인한 폐사율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양계농가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규 CJ양계사료팀장은 “CJ 바이오텍 사료 시리즈는 특히, 여름철 창궐하는 세균성 질병 중 가금티푸스 질병 예방에 그 효과가 탁월하여 티푸스 병력이 있는 농장, 환기 불량으로 고생하는 농장 등의 폐사율을 절감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흥성사료공업(주)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에 성금 기탁

흥성사료공업(주) 정태원 회장은 지난 4월 19일 KBS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에 동참,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한편,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네오바이오(주)

3F시스템(생산이력제) 개발 완료

네오바이오(주)대표이사 유종철은 최근 3F시스템(생산이력제)을 성공적으로 개발, 운영 중에 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3F시스템'은 2008년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추가 사업 지정을 받고 2010년 3월 성공과제로 판정 받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 시스템(www.3fssystem.co.kr)이다.

'3F 시스템(Free, Fresh, Force)'은 축산물의 생산과 안전성을 검정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웹 환경을 기반으로 3년여 동안의 연구와 준비를 거쳤으며 지식경제부의 2008년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선정 과제로 친환경 인증 관련 특허자료와 매뉴얼 육성법을 통해 동일한 품질과 맛의 닭고기 생산을 가능케 했다.

또 2009년 (주)하림에서 본 시스템을 채택해



'자연실록'이라는 프리미엄 친환경 닭고기를 출시했으며, 지난 3월 (주)올품에서도 '자연에 좋은 닭'을 출시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농가의 인증과 사육 정보, 사후관리 내역, 사육프로그램, 분석정보, 생산 성적 등이 공개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농장의 생산과정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1단계 사업모델인 닭고기 구축에 성공함에 따라 2단계 모델로 계란 및 오리, 토종닭, 돼지고기, 한우, 우유 등에 대한 시스템도 완성하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네오바이오 유종철 대표이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생산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서로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